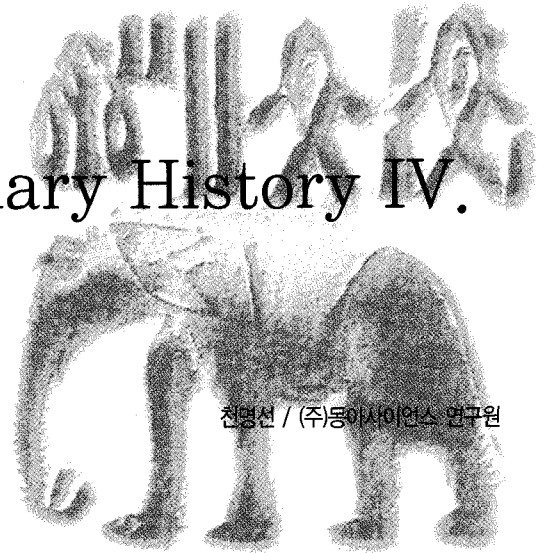


# Essay on Veterinary History IV. (인도의 전통 수의학)



천명선 / (주)동아시아인스 연구원

고대 인도의 동물들은 다른 지역에서 보다 운이 좋았다. 힌두교와 불교라는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 사람과 차별 없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인도 수의학의 모든 의학 이론과 치료를 위한 노력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각 동물에 따라 특성 있는 의술이 행해졌다.

아유르베다(ayurveda) 의학, 즉, 인도 전통의학의 기원은 기원전 15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다(Veda)'란 지식을 뜻하는 말로 산스크리트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인도 제식 문화를 집대성한 리그베다 (Rig Veda), 사마베다 (Sama Veda), 야주르베다(Jadsur Veda), 아타르바베다(Atharva Veda)를 4대 베다라고 한다. 이 경전들 속에서 고대 인도의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아유르베다(ayurveda)는 '생명의 지식'이란 뜻으로 후에 기원전 6세기경 의학서로 체계화된 경전을 말하는데 인도 전통의학을 일컫는 용어로도 쓰인다.

## 코끼리 의학 서적 - 하스티아유르베다(Hastyāyurve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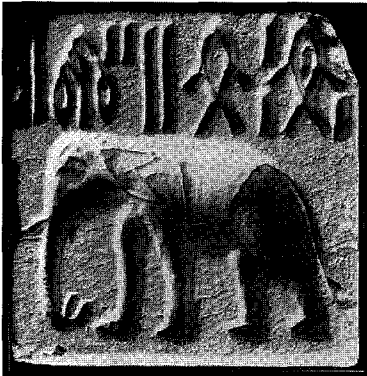
알렉산더의 원정을 다룬 최근 영화는 인도에서 벌이는 전투를 상당히 참혹하게 묘사한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내리는 폭우와 더불어 알렉산더의 군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1 의사학자들은 고대 인도의학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베다 전 시대 (Pre-Vedic Period) ~ 기원전 1500년

베다 시대 (Vedic period) ~ 기원전 800년

브라만 시대 (Bramanic Period) ~ 기원 후 1000년



A. von den Driesch/J. Peters  
그림 1. 모헨조-다로 유적의 인장에 새겨진 코끼리 문양

주인공이 바로 '코끼리'인데, 그 위력을 고스란히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성체의 경우 몸무게가 5톤에 임박하는 이 거대한 동물은 생육기간이 길고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기 때문에 분명 '가축'으로 적당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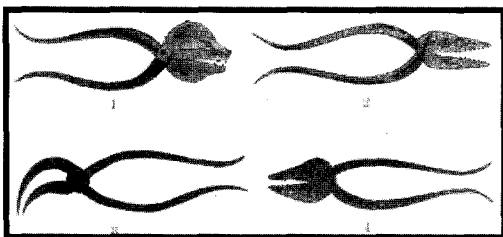
따라서 어느 정도 자란 코끼리를 잡아 길들여 수송이나 전쟁에 이용했다. 언제부터 코끼리가 인도에 서식했는지 언제 처음 길들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도 역사와 문화에서 코끼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무시 못할 사실이다(그림 1).

전설 속의 인물로 궁정 수의사였던 팔라카파 (Palakapya)가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하스티야유르베다

(Hastyayurveda,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코끼리의 장수를 위한 지식)가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다. 고대로부터 구전되던 것이 기원전 500년경 '베다'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 학자들은 이 책의 형식과 바탕을 이루는 의학 이론(아유르베다)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는 기원후 5세기경에 완성된 형태로 세상에 선보이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인도 고대 의학의 생리학에서는 3가지 도샤(dosas) 개념을 적용한다. 도샤는 우주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즉, 공(空, akasha), 바람(風, vayu), 불(火, tejas), 물(水, jala), 흙(土, prthivi) 이 몸 속에서 세 가지 기본 성분(체질)으로 나타는 것으로 이들의 조화가 정상적인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들은 바타(氣, vaya), 피타(膽, pitta), 카파(痰, kapha) 세 가지인데 여기에 제 4요소로 혈액을 포함시킨다. 이들의 균형이 깨어지면 질병이 생겨난다. 하스티야유르베다에는 다음과 같이 질병발생의 병리학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수의사는) 외부의 영향에서 비롯되는 질병과 내부에서 생겨나는 질병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에는 마귀나 신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질병들이 속한다.

내부에서 생겨나는 질병은 심정적인 요소나 도샤의 조화가 깨져서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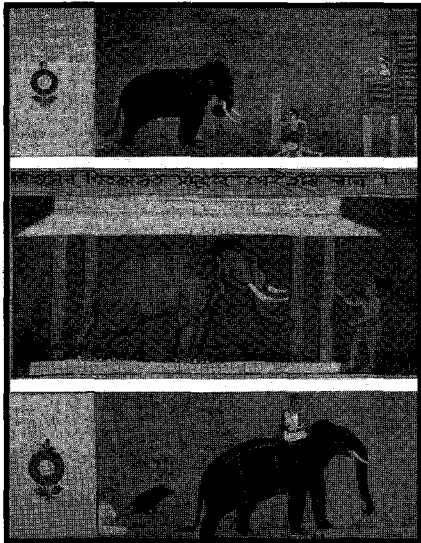


A. von den Driesch/J. Peters  
그림 2. 하스티야유르베다에 묘사된 외과도구

내부에서 생기는 질병들은 4가지 도샤 중 한가지나 혹은 복합적인 이상으로 생겨난다."

인도의학이 발달된 외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인 지식은 뒤떨어졌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외과시술을 다루고 있는 하스티야유르베다 34개의 장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발생학에 대한 인도인들의 지식을 엿볼 수





A. von den Driesch/J. Peters  
그림 3. 하스티비드야르나바(Hastividy?rnava,1734)

있다. 발을 헛디뎠거나 다른 물체에 의해 혹은 사자나 호랑이, 뱀에 물려 생긴 상처 등 다양한 외상과 치아 질병 등에 대한 치료도 나와 있다. 이들은 상처를 불로 달구거나 씻어냈고 절단 수술을 행하기도 했다.

철저한 위생관념과 정확한 손놀림은 수준 높은 인도 외과술의 핵심이었다(그림 2).

이 책에는 ‘코끼리는 야생상태에서는 질병이 없었지만 간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다’는 서술과 함께, ‘... 그러므로 수술에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코끼리는 도샤(dosas)의 조화가 깨져서 보다 의사의 칼을 통해 더 쉽게 죽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어 수술에 임하는 수의사들에게 주는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준다.

그러나 훨씬 후대의 코끼리 의학 서적에는 이런 외과 시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 힌두교의 교리가

수의학에도 영향을 미친 듯 하다.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시술이 보이질 않는다. 18세기에 편찬된 코끼리 사육 및 의학에 관한 총서인 하스티비드야르나바(Hastividyarnava)에는 더 이상 외과시술은 없다. 다만 다양한 약을 이용한 치료는 계속 발전했다. 이런 치료약들은 물론 외용으로도 쓰였고 환부에 약초와 함께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했다(그림 3).

### 말에도 카스트제가 적용되었다?

팔라카파(Palakarya)가 코끼리 의학의 아버지라면 인도 마의학에서는 살리호트라(Salihotra)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전설 속의 마의(馬醫)인 그는 언제 사람이었는지 실존인물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의 이름은 인도 전통 마(의)술(馬醫術)을 의미하는 살로터(Saloter)라는 단어에도 남아있으며 그의 이름을 딴 마의학 서적들이 전해진다. 많은 산스크리트어로 된 마(의)술 책들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현대어로 풀이된 것은 소수에 불과해 연구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서적 중 10세기경 나쿨라(Nakula)에서 나온 마의학 서적(Aśvacikitsa)은 사람이 말을 돌보게 된 내용을 담은 전설을 소개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말은 지상의 동물이 아니었다.





A. von den Driesch/J. Peters  
 그림 4. 나쿨라(Nakula)에서 나온 마의학 서적  
 (A?vacikitsa)

날개를 달고 맘대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었던 이 동물은 질병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인드라<sup>2)</sup>의 명령을 받은 살리호트라가 이 말을 화살로 쏘아 떨어뜨리고 날개를 잘라 버렸다. 이에 말은 큰 고통 속에서 슬프게 그의 주위를 돌았다. 이에 불쌍한 마음을 품은 살리호트라는 말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말이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면 말은 좋은 먹이와 물을 늘 공급받을 것이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상의 의술을 제공받는다 하는 것이다.

고대 인도의 수의사들은 코끼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에서도 많은 질병을 구분하고 그 치료법을 구분했다. 마의학에서 다루는 치료법은 우선 방혈법을 들 수 있다. 나쿨라 서적에는 방혈할 수 있는 부위를 표시한 그림이 실려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서처럼 인도의 전통의학도 다양한 약초를 이용한다. 말 치료에 쓰인 약제들은 대부분 약초들인데 모두 आयुर्वेदा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약초는 가루나 탕으로 만들거나 물을 우려내거나, 술에 녹여 투여했다. 연고 형태의 외용제로도 사용되었으며 흡입이나 훈연 등의 투여법도 알려져 있었다(그림 4).

마지막으로 마의학과 큰 관련은 없지만, 재미있는 기록을 소개한다. 고대 인도인들은 말을 색과 외형에 따라 네 계급(카스트, caste)으로 나누어 놓았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인도인들의 카스트가 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드라 계층의 말은 역시 더러운 계층으로 업신여김을 받았다. 1947년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된 이후 말들의 카스트도 함께 풀렸을까?

## 아소카 왕과 동물의료기관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274~232 BC)은 그의 광대한 제국을 세우고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끔찍한 전쟁의 결과를 깨닫고 불교의 교리로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의지를 담아 그는 자신의 제국 곳곳에 세운 14조의 조칙을 새긴 석주를 세웠다. 이 석주에는 동물보호와 동물 치료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2 인도 신화의 신들의 왕으로 하늘과 벼락의 신

이 조항을 통해 아소카왕은 동물을 죽이지 말고 귀하게 대해줄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치료를 위한 약초들을 늘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는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을 갖추도록 명령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고대 인도 수의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현재와 과거, 신화와 실제의 만남 인도의 전통의학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인도와 중국의 고대 수리학을 논할 때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두 문화권에서 의학이란 단순한 치료방법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이고 철학이란 것과 이들의 전통의학은 현대 의학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지고 여전히 의료행위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통의학이 과학적이다 아니하다는 논쟁을 떠나서 생활 속에 깊숙하게 자리잡은 의학 문화와 철학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도 역시 의미 있는 작업이다. **대한수**



**참고서적**

A. von den Driesch, J. Peters: Geschichte der Tiermedizin, 2003, Schattauer, Stuttgart

R. H. Dunlop, D. J. Williams: Veterinary Medicine, An Illustrated History, 1996, Mosby, St. Louis

D. Karaszson: A Concise History of Veterinary Medicine, 1988, Akademiai Kiado, Budapest

하인리히 참매(이숙중 옮김): 인도의 신화와 예술, 2000, 대원사, 서울

이재남: 의학의 역사, 2000, 출판기획 위드, 서울

S. Oloff: Die pferdeheilkunde der Abdullah Kahn, Emir Am Hofe des Grossmoguls Shah Jehan, 1981, Vet.med Diss., Munich